

# 해양 바이오에너지 산업화에 490억원

## 전라남도, 8개 기업에 14개 대학 참여 ... 디젤-에탄올 생산기술 개발

전라남도의 해양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술 연구가 국가지원 과제에 선정돼 산업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월1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인천시와 조선대, 인하대 등 전국 14개 대학, 풍백산업 등 8개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해양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술 연구과제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신규 공모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490억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해양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술을 개발해 산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중장기 프로젝트이다.

2009년에는 16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전라남도의 해조류 바이오에탄올(Bio-Ethanol) 산업화에 투입하고 바이오디젤(Bio-Diesel)과 바이오알코올(Bio-Alcohol) 등의 생산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세부 연구과제는 ▲미세조류를 대량 배양 및 채집, 바이오디젤 생산기술 개발 ▲해조류(미역, 다시마, 우뚝가사리 등)의 대량 양식, 바이오알코올 생산기술 개발 ▲바이오연료용 미세조류 및 해조류의 우수종 개량과 생태계 관리기술 개발 등이다.

이인곤 전라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은 “전국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전라남도 천혜의 해양자원과 연구인력, 배양장 등을 활용해 해양바이오 에너지 산업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10>